

## 포로 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들을 정화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

5/8 월요일

### 아침의 누림

스 10:10-11

10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여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허물을 더하였습니다. 11 그러니 이제 여호와와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과 이방 여자들과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느 13:30

30 나는 이렇게 그들을 이방의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였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각자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

스 9:1-2

1 이러한 일들을 마쳤을 때, 고관들이 나에게 나아와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자신을 분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짓들,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이집트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가증스러운 짓들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2 그들은 저들의 딸들을 자신들과 아들들의 아내로 삼아 거룩한 씨를 이 땅의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는데, 실로 인도자들과 지도자들의 손이 이 신실하지 못한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딤후 2:19-22

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는 서 있으며, 거기에는 이러한 말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20 그렇지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하게 되고 어떤 것은 천하게 됩니다.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 있게 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될 것입니다.

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겔 34:26

26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주변을 복이 되게 하고 제때에 소나기를 내리리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

에스라는 회복을 강하고 부유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정화했다. 에스라가 도착하기 전에 혼잡이 있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교도 아내를 두어 이러한 혼잡에서부터 자녀들을 낳았다.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예표이다. 회복은 거룩한 씨이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혼잡이다. ... 회복은 거룩하다. 그러나 받아들인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다지 거룩하지 않다. 그러므로 혼잡이 있고, 정화하는 일을 할 에스라들이 필요하다. 에스라는 회복을 정화한 사람이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지극히 순수하고 단순하며 어떤 혼잡도 없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바빌론에서 돌아오면서 그 배경도 함께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 주님의 회복 안에는 거룩한 씨를 이교도적인 모든 것에서 분별하기 위해 정화가 필요하다. 교파들에서 실행했던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으로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이교도 아내들’을

데려오는 것이다. ... 우리 모두는 우리의 배경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와 관계없이 그것들을 포기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씨가 어떤 이교도적인 것과도 결코 섞이지 않도록 매우 순수해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2 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의 회복, 7 장, 560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회복이 거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볼 것이다. 어떤 곳들에서 축복이 끊어진 이유는 바로 배경에 의하여 야기된 혼잡 때문이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 차례 비난을 받았다. 우리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하는 것이다. ... 과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전하게 했을 때 문제만 일어났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공과를 배우게 되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좁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회복이 지극히 순수하고 지극히 단일하며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정화하는 일을 할 에스라들이 참으로 필요하다. 주님은 어떤 종류의 혼잡도 좋아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물은 ‘제 종류대로’였다. ... 우리는 순수해야 하며, 엄격하고 단순하며 우리의 종류대로여야 한다. 우리가 교파들이라면, 다만 교파들이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자유 단체들이라면 다만 자유 단체들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방 교회라면, 다만 지방 교회여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제 종류대로 지극히 단순하고 단일하며 순수하고 참되어야 한다. 우리는 절대적이어야만 한다. 주님은 어떤 종류의 혼잡도 결코 귀히 여기지 않으신다. 그것은 반드시 제 종류대로 존재해야 한다.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 두 책 모두에 정확하는 일이 나와 있다. 한 번은 성전을 건축한 후였고, 또 한 번은 성을 건축한 후였다. 주님의 회복의 모든 단계에서 정확하는 일이 필요하다.

에스라는 제사장 겸 교사였으며, 백성에게 제사장의 가르침을 주어 그들이 정확되도록 도왔다. 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을 때 그들은 영감을 받았다. 그들 모두가 이방과의 혼합을 다 버리겠다는 언약을 맺는 데에 동의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모든 혼합을 배제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혼합에서 철저히 정확되어야 한다. 속된 것이나 하늘에 속한 본성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주님의 회복은 반드시 순수해야 한다. 우리는 집을 건축한 후에 정확화가 필요하고, 성을 건축한 후에 다시 정확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확하는 일은 에스라뿐 아니라 느헤미야에 의해서도 실현되고 수행되었다. 에스라의 인도 아래서 적어도 두 번의 정확하는 일이 있었고,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서는 한 번의 정확하는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서 성벽의 회복이 필요하고, 또한 정확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필요한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2 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의 회복, 7 장, 560-561 쪽, 8 장, 57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스라 라이프 스타디, 4 장; 느헤미야 라이프 스타디, 4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2 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의 회복, 3, 7-8 장;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의 회복, 7 장

## 5/9 화요일

### 아침의 누림

#### 고후 7:1

1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가졌으니,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 히 4:12

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요 1:16-17

16 우리가 다 그분의 총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 살전 5:23

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 딤후 1:6-7

6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 엡 5:26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

우리는 영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영 자체는 더럽지 않다. 고린도후서 7 장 1 절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라고 말하지만, 이 더러움은 영 자체의 더러움이 아니다. 이 더러움은 혼과 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영은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영을 에워싸고 있는 혼과 몸이 이미 사탄의 악한 요소와 혼합되어 더러워졌고 부패했다. 그러므로 영이 나오면서 혼과 몸을 통과할 때 더러움과 부패에 오염된다. 이리므로 영이 나타날 때 더러움, 부패함, 불순함, 부적당함 등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영을 처리하는 것은 영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통로인 마음의 목적과 동기와 목표와 의도를 처리하는 것이다. 행동하거나 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만을 묻지 말고, 우리의 내적 의도가 깨끗한지, 동기가 순수한지, 목표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도 분별해야 한다. 우리의 행동 이면에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있지는 않은가? 어떤 자기 지향적인 것이 있지는 않은가?(생명의 체험(하), 13 장, 165, 167, 170-171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마음의 온갖 부정적인 목적, 바람직하지 못한 의도, 불순한 성향, 부당한 뜻, 혼합된 감정을 철저히 처리함으로써, 영이 나오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올바르게 깨끗하고 순수하게 나오도록 해야 한다.

영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의도들과 동기들, 여러 혼합들을 처리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비해, 양심을 처리하는 것은 여러 혼합들에 대한 양심의 느낌을 처리하는 것을 강조한다.

한 형제가 다른 한 형제에게 큰 불만을 지니고 많은 비평과 불평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러한 느낌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양심 속에서는 이 일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한다. 이것은 그 형제 자신의 양심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형제는 이 불만스러운 느낌을 버리거나 이러한 혼합을 처리하고자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이 형제를 기억하거나 이 형제를 언급할 때는 언제나 그의 영에 여전히 이러한 혼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의 영은 불만스럽고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 ... 그 형제가 다시금 긍휼을 얻어서 자신 속에 깊이 숨겨진 불만을 버리게 되면, 영 안에 더 이상 그러한 혼합을 지니지 않게 되고, 영을 처리하는 공과를 한 번 더 배우게 될 것이다.

속에 있는 본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영을 처리해야 한다. 본질이 처리될 때에야 문제의 근원이 처리될 것이다.

영을 처리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각종 처리의 방법과 유사하다. 첫째로, 혼합들을 유죄판결 해야 한다. 둘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비뚤어진 영을 지니고 있다면, 먼저 이 비뚤어짐을 죄로 유죄판결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이 비뚤어짐을 일소해야 한다. 유죄판결 하고 제거하는 일이 성령의 능력을 통한 것이지만, 시작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기꺼이 그러한 처리를 하려고 해야 하고, 그렇게 처리하기를 갈망해야 한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 성령은 우리의 의지가

협력할 것을 요구하신다. 성령은 이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실 것이다.(생명의 체험(하), 13 장, 172-17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체험(하), 13 장; 워치만 니 전집, 34 권, 영광스러운 교회, 5 장

## 5/10 수요일

### 아침의 누림

#### 마 5:8

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 욥 42:5

5 제가 주님께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 계 22:4

4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 딤후 1:5

5 이 명령을 한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 시 73:1

1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마음이 순수한 이들에게 좋으신 분.

### 요일 3:1-3

1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도록,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분께 이 소망을 둔 사람마다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합니다.

---

과거 몇십 년 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큰 뜻, 곧 야망은 있으나 역량을 소유하지 못한 데 있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야망의 목표에 도달할 역량이 없다면, 그는 명예스럽지 못한 정치가처럼 될 것이다. 교회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문제는 이 점에 있다. 역량 외에 합당한 마음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마음이 순수해야 하며 주님의 회복을 위해 단일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세상 정부에서 일하는 것과 같다. 그가 그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야망과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의 동기가 순수하다면, 그는 국가의 영웅이 될 수 있고 국민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 야망과 역량은 있으나 순수한 동기가 없다면, 그는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같은 원칙을 주님의 회복 안에서도 볼 수 있다.

나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야망을 갖기를 격려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역량뿐 아니라 순수한 동기도 우리에게 주시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한다. 우리가 셋 모두를 가질 때에만

주님의 손에서 유용하게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조만간 우리는 문제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로마서에 있는 생명의 구원, 4 장, 35-37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마 5:8)은 목적이 단일한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고전 10:31)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단일한 목표를 갖는 것이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물론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으로 그분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열린 영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일종의 체험과 누림이다.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며 우리 존재 안으로 주입하신다. (신약의 결론, 9 권, 믿는 이들, 135 장, 19-20 쪽)

욥기 42 장은 욥의 이야기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한 신성한 계시가 하나님의 의해 어떻게 최종 완결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제가 주님께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 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욥 42:5-6) 이것은 욥이 그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 하나님을 얻었고 자신을 혐오했음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마 5:8). 하나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일부가 되게 한다. 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할 때 ‘-과(와) 하나

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것, 곧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으로 조성되지만, 신격에는 조금도 참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계 22:4). 우리는 하나님을 봄으로써 변화되는데(고후 3:18),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요소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옛 요소는 배출된다.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과정이 변화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일부가 되게 한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을 혐오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혐오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더욱더 자신을 부인하게 된다.(욥기 라이프 스타디, 30 장, 175-17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욥기 라이프 스타디, 30 장; 로마서에 있는 생명의 구원, 4 장

### 5/11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행 24:16

16 이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대하여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 딤후 1:3

3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 히 10:21-22

21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22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 고후 11:2-3

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3 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 렘 29:13-14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또 발견할 것이다.

14 나는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뭍에서 돌아오게 하며, 내가 모든 민족에게서 또 너희를 몰아내었던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겠다.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낸 곳에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

양심은 우리의 영의 주도적인 부분이다. 양심이 잘못되면 결코 올바른 영을 가질 수 없다. ... 양심이 잘못되면 영은 사실상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다음 또한 우리에게 '순수한' 양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행한 잘못을 처리하고 주님의 피를 적용하여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때, 이 양심은 거리낌 없는 양심이 된다. 다시 말하면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선한 양심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우리를 유죄판결 하지 않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양심이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 순수한 양심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 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이외의' 무언가를 구한다. ...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다. ... 우리의 마음이 단일하고 순수하며 하나님만 구한다면, 이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외의 무언가를 구한다면,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양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 양심은 순수하지 않게 된다. (스트림, 1 권, 영문판, 306-307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양심은 가장 먼저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반드시 순수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선한 형제를 자주 만난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우리는 그가 복음의 일도 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무언가를 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그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양심은 그를 유죄판결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어려움은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일이 그의 삶에서 주님을 대치한다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 '께 속한' 것이지만 '주님'은 아니다. 이 형제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수한 양심은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은 "나는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자신 외에는 그 무엇도 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순수한 양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처리를 통해 얻게 되는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만이 우리의 양심에 영향을 주어 우리의 양심을 순수하고 단일하게 만들 수 있다. ...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포함한다. 순수한 마음은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단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생각이 순수해야 하고, 우리의 감정이 순수해야 하며, 우리의 의지가 순수해야 하고, 우리의 양심이 순수해야 한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순수해야 한다.

우리가 순수한 양심을 가지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단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 외의 '그 무엇도'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주님 외의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않으며, 우리의 의지가 주님 외의 '그 무엇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럴 때에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 구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순수한 양심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완전하고도 온전히 점유되었는가? 우리의 감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단순하고 전일하고 온전히 사랑하는가?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있는가? 우리가 정직하다면, 즉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방황하고, 우리의 감정은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의지는 쉽게 변한다. 이 부분들이 순수할 때에만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할 때에만 우리의 양심이 순수할 것이다. 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다.

우리의 양심이 순수하지 않다면, 우리의 영은 결코 강해질 수 없다. ... 우리는 주님 이외의 다른 것을 구할 것이다. 그것이 최악된 것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 깊은 곳에 매우 섬세하게 유죄판결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매우 강하거나 거칠지는 않지만, 매우 부드럽고 섬세한 유죄판결이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위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항상 말한다. 그러한 유죄판결이 우리의 영을 약화시킨다. (스트림, 1 권, 영문판, 307-30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스트림, 1 권, 영문판, 306-308 쪽; 윌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 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살아 있고 실지적인 길, 7 장

5/12 금요일

### 아침의 누림

고후 6:4, 6

4 다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추천합니다. 곧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곤경에 처하고 6 또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과

**딤후 3:9**

9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딤후 1:15**

15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합니다. 그러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한 것이 없고, 심지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다 더럽혀져 있을 뿐입니다.

**골 1:23-26**

23 다만 여러분은 계속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서 터가 굳어지고 견고하게 되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여러분이 들은 것이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25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6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영과 혼의 혼합이다. 언제든지 그의 영이 나올 때 그의 혼도 나온다. 순수한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첫째 자격 조건은 능력이 많은가 적은가 아니라 영이 순수한가이다. 큰 능력은 바라면서 영의 순수함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 한 면에서 그들은 능력을 사용하여 건축한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그들은 자신이

건축한 것을 자신의 불순함으로 인해 허물어 버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에는 혼합된 것이 있다. (워치만 니 전집, 54 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7 장, 277-27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혼합이라는 문제는 주님의 일꾼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서 생명을 만지는 동시에 죽음을 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형제자매들에게서 하나님을 만지는 동시에 그의 자아를 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형제자매들에게서 온유한 영을 만지는 동시에 그의 완고한 자아를 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서 성령과 그들의 육체를 함께 발견한다. ...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사역 안에서 그분을 섬기게 하시거나 우리가 그분을 위해 말해야 할 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하나님, 제 안에서 일하십시오. 저의 걸사람을 파쇄하시고 허물어 주십시오. 저의 걸사람과 속사람을 분리해 주십시오.” 이러한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걸사람을 표현할 것이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면 언제나 그런 사람인 것이다. 우리는 가장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을 해방해야 하고 우리의 영이 순수해야 한다. ... 우리의 걸사람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말씀을 공급함으로 섬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함께 전달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손상을 입힐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혼합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손상을 입힐 뿐 아니라 교회에게도 손실을 끼칠 것이다. (워치만 니 전집, 54 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7 장, 281-282 쪽)

교회생활과 주님의 일에서 불순함은 싹까지 모두 죽인다. 우리가 불순하다면, 불순함은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죽인다. ... 많은 세월을 지내 오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나 자신이 불순할까 봐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주님만이 아신다.

책임을 지는 것이나 장로 직분이나 인도 직분의 전제 조건은 순수함이다. 조화되기 위해서는 순수함이 필요하다. ... 교회생활에서는 언제나 일이 발생한다.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면, 이번 어려움에 걸려들든지 아니면 다음 어려움에 걸려들 것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수하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걸려들지 않을 것이다.

많은 경우,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인내는 불순함에서 나온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무례하고 조심성이 없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순수함이 기본적인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순수함은 모든 세균을 죽인다.

오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가? 많은 경우, 그것의 근원은 불순함이다. 불순함이 없이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룰 수 있고 의견이 대립할 수 있어도 오해는 없다. 그러나 일단 어떤 불순함이 들어오면 오해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조심하고 인내하고 현명하게 처신할지라도,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계속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만드는 것은 육체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상에서, 회사에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매우 조심하는 것은 세상이 불순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곳에 순수함만 있어야 한다.

순수함은 우리의 봉사의 기본 조건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1권, 장로들과의 실제적인 담화, 2장, 42-45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54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7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1권, 장로들과의 실제적인 담화, 2-3장*

## 5/13 토요일

### 아침의 누림

#### 고후 5:21

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 계 1:20

20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 계 22:1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 고후 3:16-18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고후 4:5-7

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

그 영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체험한 결과, 우리는 의롭게 된다. 자연스럽게 우리 속존재는 투명해지고 수정처럼 맑아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과 일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 행할 것이다.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을 주입받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적셔진다면, 우리의 내적 존재는 투명해질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분의 뜻을 행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께 올바를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즉,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자기 자신에게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형상 곧 표현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27장, 258-259쪽)

### 오늘의 읽을 말씀

거룩한 성의 길은 순금이다(계 21:21). ...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한다.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 후에 우리는 우리의 길인 신성한 본성에 따라 행해야 한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일한 길의 순금이 '투명한 유리'와 같다는 것은 조금도 불투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금으로 된 길은 수정처럼 맑으며 조금도 불투명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유일한 길로 취한다면, 어떠한 혼합도 없이 순수할 것이고 어떠한 불투명함도 없이 투명할 것임을 가리킨다.(신약의 결론, 16권, 새 예루살렘, 262장, 87-88쪽)

성 자체는 어떤 혼합도 없는 순금으로 되어 있다(계 21:18 하).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백 퍼센트 하나님께 속해야 함을 가리킨다. 교회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신성한 본성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교회는 신성한 본성의 어떤 부분과 타락한 인성의 어떤 부분이 혼합된 것이다. 우리가 참된 교회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교회 자체가 순수한 금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전적으로 신성한 본성에 속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를 정화하고 순수하게 하는 십자가의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약 삼십 년 전에 나는 순수한 것과 깨끗한 것이 서로 다르다는 짝막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매우 놀랐었다. 나는 깨끗한 것만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마치 순금이 어떤 혼합도 없이 맑아지기 위해 정화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때 이후로 주님은 나에게 깨끗한 것과 순수한 것 사이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보여 주셨다. 한 사랑스러운 형제가 친절하고 상냥하고 깨끗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에게 혼합된 것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는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다. 그는 친절하고 깨끗하지만 우리는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 ... 깨끗한 것과 순수하고 투명한 것은 별개의 것이다. 종종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어떤 성도를 만날 때, 그가 깨끗할 뿐 아니라 맑은 유리처럼 투명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삼십여 년 동안 니 형제님과 함께 있었다. 그 모든 해 동안 그를 만날 때마다 나는 그가 투명한 사람임을 느꼈다. 내가 그 앞에 앉았을 때 나는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설 때마다 청중은 그가 투명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우리는 단지 깨끗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 정화될 필요가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2권, 하나님의 중심 사상, 13장, 626-627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2권, 하나님의 중심 사상, 13장; 신약의 결론, 16권, 새 예루살렘, 262장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체험(하), 13장;

### 찬송: 744 주님의 생명 누리며 (中:540)

- 1 주님의 생명 누리며 교통 나누려면 합당한 마음 필요해 주 은혜로 인해.
- 2 순결한 생활 위하여 필요한 마음은 주의 뜻 알기 위하여 두렵고 떠는 맘.
- 3 불 같은 사랑 얻는 데 필요한 마음은 주 향한 열심과 사랑 충만한 그 마음.
- 4 성실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해 강하든 또한 유하든 주 따르는 마음.
- 5 정결한 양심에 믿음 더해진 마음은 범사에 주와 화목해 평안함 누리리.
- 6 주 항상 이 맘 주셔서 주 사모하게 해 부요한 주를 누리서 주 충만 되게 해.

### 5/14 주일

#### 아침의 누림

#### 계 1:10-20

- 10 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 11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곧 에베소에,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오디게아에 보내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12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을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 13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희었고,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으며,
- 15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제련된 빛나는 놋쇠와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 16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 17 그분을 뵈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 18 살아 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 19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 일들이 있는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 20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8:3-6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15장

#### 2 단계-주제별 연구

*Reconciliation and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로마서 5:10-11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msgs. 9, 57

*Assigned Reading: Truth Lessons, Level One, Vol. 4, lesson 40; Life-study of 2 Corinthians, msgs. 14, 37*

*Supplemental Reading: Christ and the Cross, ch. 14*

Hymn: 299

[churchinnyc.org/bible-study](http://churchinnyc.org/bible-study)